

보도 일시	2022. 9. 20.(화)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9. 20.(화)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유재형 (044-201-2531)
		담당자	서기관 김정주 (044-201-2537)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 예찰·정밀검사 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어제(9월 19일)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역대(10km) 내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5.3km 거리에 위치한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6,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되었다. 나머지 농장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 농장 반경 500m~3km 내 농장 없음, 3~10km 5호(14,600마리)

중수본은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